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분석)-글로벌 공급망 위협하는 中 제로 코로나 정책
- ◇ (칼럼)-중국발 인플레이션 쇼크 대비해야
- ◇ (초점)-채권시장 막힌 혈 뚫은 주상영 위원..어디까지가 금통위 컨센서스일까?
- ◇ (시장진단)-굳직한 재료 다 나왔다?..원화, 박스권 장세로 복귀하나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 상하이를 봉쇄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한 가운데 봉쇄 지역 바로 밖에서 한 남성이 스쿠터 위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로이터/알리 송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4월15일 종가 기준)

| 원화 % | 최종 | 주간(%) | YTD(%) | 2021(%) | 달러 대비 % | 최종 | 주간(%) | YTD(%) | 2021(%) |
|---------|----------|--------|---------|----------|------------|-----------|--------|---------|----------|
| 달러 대비 | 1,229.6 | -0.4% | -3.3% | -8.6% | 유로 | 1.0808 | -0.6% | -4.9% | -6.9% |
| 100엔 대비 | 972.7 | 1.6% | 6.2% | +1.8% | 엔 | 126.36 | -1.6% | -8.9% | -10.3% |
| 유로 대비 | 1,328.4 | 0.7% | 1.8% | -1.9% | 위안 | 6.3711 | -0.1% | -0.3% | +2.7% |
| 위안 대비 | 192.91 | 0.1% | -3.0% | -11.1% | 해외주식 | 최종 | 주간(%) | YTD(%) | 2021(%) |
| 한국주식 | 최종 | 주간(%) | YTD(%) | 2021(%) | 다우존스 | 34,451.23 | -0.8% | -5.2% | +18.7% |
| 코스피 | 2,696.06 | -0.2% | -9.5% | +3.6% | 나스닥 | 13,351.08 | -2.6% | -14.7% | +21.4% |
| 코스닥 | 924.44 | -1.1% | -10.6% | +6.8% | S&P500 | 4,392.59 | -2.1% | -7.8% | +26.9% |
| 국내시장금리 | 최종(%) | 주간(bp) | YTD(bp) | 2021(bp) | MSCI APxJP | 576.84 | -1.2% | -8.4% | -4.9% |
| 국고채 3Y | 2.944% | -4.3bp | 114.6bp | +82.2bp | 미국시장금리 | 최종(%) | 주간(bp) | YTD(bp) | 2021(bp) |
| 국고채 5Y | 3.166% | 5.0bp | 115.5bp | +67.6bp | 미국채 2Y | 2.450% | -6.0bp | 172.0bp | +61.0bp |
| 국고채 10Y | 3.301% | 13.2bp | 105.1bp | +53.7bp | 미국채 10Y | 2.830% | 13.0bp | 132.0bp | +59.5bp |
| 국제상품가격 | 최종 | 주간(%) | YTD(%) | 2021(%) | CDS프리미엄 | 최종(bp) | 주간(bp) | YTD(bp) | 2021(bp) |
| 유가(WTI) | 106.54 | 8.8% | 41.2% | +55.8% | 한국 5Y | 31.4bp | 2.1bp | 9.3bp | -0.7bp |
| 금(현물) | 1,974.81 | 1.4% | 8.0% | -3.6% | 일본 5Y | 18.2bp | -0.1bp | 0.6bp | +2.1bp |
| TR상품지수 | 3,960.15 | 3.6% | 18.6% | +24.6% | 중국 5Y | 68.2bp | 5.4bp | 27.0bp | +12.1bp |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레피니티브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4월 18일(월)>

- 특이 일정 없음

<19일(화)>

- 국회 기재위,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10:00)
- 한은, 3월 거주자 외화예금 동향(12:00)
- 기재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EO) 발표(22:00)

<20일(수)>

- 기재부, 부총리 기후행동재무장관연합 제 7차 장관회의 참석 및 IMF 총재 및 인도 재무장관 면담(10:00)

<21일(목)>

- 관세청, 4월 1-20일 수출입 동향
- 한은: 2022년 3월 생산자물가지수(06:00)
- 기재부,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美·스페인 재무장관 면담(12:00)

<22일(금)>

- 금강원, 2021년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06:00)
- 기재부, 부총리 IMFC 회의 참석 및 S&P 글로벌 총괄 면담(10:00)
- 기재부, 4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00)

<23일(토)>

- 기재부: 부총리 MSCI 회장 면담(09: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4월 18일(월)>

- 중국 1-3월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 (11:00)
- 중국 3월 산업생산·소매판매 (11:00)
- 중국 1분기 GDP (11:00)
- 미국 4월 NAHB 주택시장지수 (23:00)
- 홍콩,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휴장

<19일(화)>

- RBA, 4월 통화정책회의록 공개 (10:30)
- 세계은행/IMF, 경제전망·금융안정 보고서 발행
- 일본 2월 산업생산 수정치 (13:30)
- 미국 3월 건축허가·주택착공 (21:30)

<20일(수)>

- 일본 3월 수출입 (08:50)
- 중국 4월 대출우대금리 (10:15)
- 유로존 2월 산업생산 (18:0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 (20:00)
- 미국 3월 기존주택 판매 (23:00)

<21일(목)>

- 연방준비제도, 베이지북 발행 (03:00)
-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 미국 4월 필라델피아 연은 경기지수 (21:30)
- 유로존 4월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23:00)

<22일(금)>

- 일본 3월 CPI (08:30)
- 일본 4월 지분은행 제조업 PMI 잠정치 (09:30)
- 유로존 2월 경상수지 (18:00)
- IMF·세계은행 춘계 회의 개최 (~24일)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외환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달러 강세 확산 정도와 막바지로 접어드는 상장사 배당금 지급 재료 등을 소화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예상 주간 환율 범위는 1220-1240 원이다.
- 미국 등 주요 중앙은행이 긴축 행렬에 나서고 있지만 강도와 속도 면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부각되면서 국내외 금융시장 긴장감은 여전하다.
- 일본과 중국은 오히려 완화 쪽을 선택하고, 유럽 중앙은행(ECB)도 경기 하방 위험을 고려해 긴축 선회로의 발걸음을 쉽게 내딛지 못하고 있다.
- 중국인민은행은 15일 시장 전망대로 금융기관 기준율을 오는 25일부터 0.25%p 인하했다.
- 이에 강달러 모멘텀에는 더욱 힘이 실린다.
- 한편 주초에 나올 중국 1분기 GDP 성장률을 비롯한 3월 산업생산 등 핵심 경제지표는 전반적인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외국인 주식투자자 배당 지급과 20일 기준 무역수지는 수급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IMF·세계은행 춘계회의에서 패널로 참여할 예정으로 통화정책 관련 발언과 이에 시장 반응이 따를지 주목된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도 시선이 쏠린다.
- 달러/원 환율이 1240 원 근처까지 올랐다가 1220 원대로 속락한 데 따른 시장 여진이 적지 않다. 적극적인 달러 롱 구축은 제한되겠지만, 불안한 대외 여건 아래 달러/원 하단이 점진적으로 오를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 과정에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지 주목된다.

<채권시장>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채권시장은 19일로 예정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와 미국 국채금리 움직임 등에 연동하며 변동성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금통위 기자간담회 얼굴로 나선 주상영 위원이 자타공인 '비둘기'로서의 특기를 발휘하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다.
- 하지만, 기대인플레이션 관리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통화당국 입장에선 시장금리 하락이 마땅치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 주 위원의 기자간담회 내용이 지나치게 도비시켰다는 판단을 한다면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가 19일로 예정된 청문회에서 균형 잡기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다만, 시장금리 급등 영향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금융당국까지 소집한 마당에 이 후보자가 다시 한번 시장을 패닉으로 몰 커뮤니케이션까지는 자제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미국 금리는 여전히 변수다.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이 공포탄을 계속 쏘고 있는 4월이 지나가는 현재 소비자물가가 9%에 육박하는 미국은 정책금리가 단 25bp 인상됐을 뿐이다.
- 그만큼 정책 대응이 늦었고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 이와 관련해 21일로 예정된 IMF 행사는 글로벌 채권 투자자들의 큰 이목을 끌 수밖에 없다. 이 행사에서 미국 연방준비제의 제롬 파월 의장과 유럽중앙은행(ECB)의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가 세계 경제에 대해 논의한다.
- 국내 시장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라는 큰 산도 넘어야 한다. 당분간 국고채 3년물 3%를 상단으로 하는 트레이딩을 통해 안정적인 박스권을 형성하려는 시도가 늘어날 수 있어 보인다.

(분석)-글로벌 공급망 위협하는 中 제로 코로나 정책

상하이, 4월 14일 (로이터) -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 19 억제 조치가 전기차부터 아이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품의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고 있다.

일부 공장은 근로자들을 내부에 격리시키는 "폐쇄 루프" 관리를 통해 이를 극복하려 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의 코로나 규제 수준이 자재 조달과 제품 운송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버티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한다.

대만 폭스콘의 자회사인 폭스콘인터커넥트테크놀로지는 상하이 인근 쿤산의 공장을 폐쇄 루프 방식으로 운영해 왔지만, 가동률은 60%에 불과하다고 정통한 소식통은 전했다.

폭스콘은 이같은 내용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지난 13일에는 전자기기 부품 제조업체 등 대만 기업 30여 곳이 중국 동부 지역의 코로나 조치로 최소 다음 주까지 생산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하루 앞서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는 상하이와 지린성 창춘 공장 생산을 중단했으며, 다른 공장 2곳은 폐쇄 루프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폰 조립업체인 대만 페가트론은 상하이와 쿤산 내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독일 아연 건축자재 제조업체인 라인징크의 스펀 아그텐 아시아태평양 담당 CEO는 물류 문제로 인해 상하이 창고에서 폐쇄 루프 시스템 시행이 불가능하고, 4월 또는 어쩌면 5월까지 매출이 제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로이터에 "창고와 제조 시설은 작업자가 필요하고, 트럭과 운전자도 있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 요소인데 둘 다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는 국지적 억제조치가 상하이와 북동부 지린성 외 지역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게이브칼 드래고노믹스는 7일 연구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기준 중국 100대 대도시 중 87곳이 일종의 격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전기차 제조업체 니오는 다른 지역에 위치한 공급업체들의 가동 중단으로 허페이 공장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도로에 갇힌 트럭 운전자들

코로나 조치로 트럭 운송이 특히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운송이 지연되고 운송비가 올랐다. 산둥성에서 상하이로 가는 트럭 예약 요금은 7000 위안(1100 달러)에서 3만 위안으로 4배 이상 올랐다고 한 트럭 수송업체 임원은 밝혔다.

그는 "지난 2주 동안 상하이 인근에서 가용 트럭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는데, 이는 많은 트럭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 묶여 있거나 봉쇄 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물류 중심지인 쉬저우 시는 지난 8일 트럭 운전자들에 48시간 이내에 시행된 PCR 테스트 음성 결과를 제출하고, 시 도착 후 추가 테스트를 받을 것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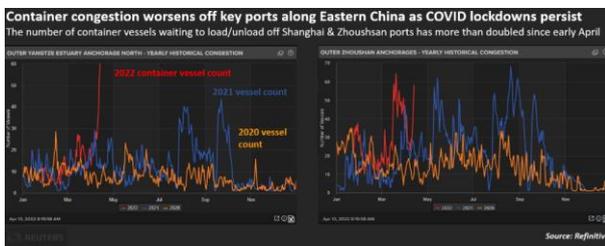
일부 운전자들은 상하이 등 지역을 방문한 후 고속도로에 갇혀 있기도 했다. 지난주 국영 언론은 상하이 방문 후 7일 동안 트럭에서 살아야 했던 운전자에 대해 보도하기도 했다.

◆ 전 세계적 영향

해외 기업 단체들은 현 상황과 관련해 특히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는 지난주 중국 내 독일 기업 절반 가량이 공급망 문제를 겪고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중국 정부에 보내기도 했다.

중국 역시 항구와 공항 운영을 지속하고 폐쇄 루프 방식 제조업 운영을 장려하면서 코로나 규제 관련 영향을 완화시키려 해왔다.

그러나 상하이와 인근 저우산 지역에서 대기 중인 컨테이너 선은 118척으로, 4월 초 이후 2배 이상 늘어났으며 1년 전 대비로는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레피니티브 자료에서 확인됐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같은 문제를 이유로 중국 경제 성장을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고, 중국 정부의 올해 공식 성장률 목표인 5.5% 달성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ING는 지난주 중국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8%에서 4.6%로 낮췄다.

이후 13일 아이리스 팡 IN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코로나 위기가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문제가 세계 경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칼럼)-중국발 인플레이션 쇼크 대비해야

(※ 로이터 칼럼니스트의 개인 견해로 로이터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홍콩, 4월 14일 (로이터) -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세계 경제를 또 한번 강타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 확산 억제에 나서면서 제조업 허브들이 멈춰섰다. 각국과 기업들은 공급망을 다각화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

만 중국 공장에 대한 세계의 의존도는 오히려 더 높아졌다.

리서치업체 게이브칼에 따르면 4월 6일 현재 중국 100대 도시 중 약 4분의 3이 다양한 수준의 팬데믹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상하이의 2600만 거주민들은 2주가 넘게 자택에 머물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바쁜 컨테이너항만인 상하이항에 대한 접근도 제한됐다. 아이폰 공급업체 페가트론은 인근 공장 두 곳의 생산을 중단했다.

지난달에는 옥수수 주요 산지이자 토요타와 폭스바겐 공장이 자리한 지린성에 극단적인 조치가 취해졌고, 주요 수출지인 광둥성은 유행에 대비해 이동을 제한하고 대규모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같은 방침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확산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중국은 지난 2020년 엄격한 봉쇄로 초기 유행 이후 공장을 빠르게 재가동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오미크론은 전염력이 더 강한 바이러스다.

경제적인 여파는 중국 국경 너머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과의 무역전쟁, 그리고 팬데믹에 따른 차질로 많은 정부와 기업들은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계획을 검토했다. 데이비드 멀패스 세계은행 총재는 최근 다각화가 "아마도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15.4%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13.1%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전 세계 물가 상승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40년 만의 최고 수준이고,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율도 3월 사상 최고치인 7.5%를 기록한 상황이다. 에너지 및 원자재 비용 급증도 3월 중국의 생산자 및 소비자물가가 예상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 이유 중 하나다.

중국의 봉쇄조치는 이미 무역에 영향을 주고 있다. 주중국 유럽상공회의소는 지난 7일 회원사들이 상하이 항구의 물동량이 전주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고, 해운업체 머스크는 컨

데이터 터미널 혼잡, 트럭 부족, 항공 화물 감소를 경고했다.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거부한다면 전 세계 물가는 더 상승할 것이다.

(초점)-채권시장 막힌 혈 뚫은 주상영 위원..어디까지가 금통위 컨센서스일까?

서울, 4월 14일 (로이터) 임승규 기자 - 주상영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공식인 한국은행 총재 대신 통화정책 방향 기자간담회에 나서 질의응답을 마친 후 채권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최근 시장금리가 기준금리 인상을 이미 선반영했다는 인식에 더해 통화 긴축 속도에 대한 우려를 희석시킨 주 위원의 발언이 시너지를 일으키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주 위원이 4월과 5월의 연속 인상 가능성을 일축한 것과, 향후 통화정책이 성장의 하방 리스크에 좀 더 무게를 둘 수 있다고 밝힌 것 등이 금리 하락 모멘텀을 키웠다.

문제는 주 위원이 그동안 자타공인 비둘기파로서의 입지를 구축해 왔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 입장에선 주 위원의 이번 기자간담회 발언에 개인의 소신이 어느 정도 피력돼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날 주 위원의 언급과 다음 달 기자간담회에 데뷔하게 될 신임 한은 총재의 발언에 간극이 있을 경우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주 위원 발언, 금통위 컨센서스와 크게 어긋나지 않아

물론 이날 주 위원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한은 집행부와 의 교감하에 이뤄졌다. 주 위원과 한은 집행부는 14일 통화정책 회의를 마친 후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11시 20분까지 1시간여 동안 취합된 질문을 가지고 세심하게 답변을 준비했다. 이는 한은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준비할 때와 다르지 않은 절차다.

한-미 금리차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한 적정 환율 수준, 국고채 금리의 오버슈팅 여부에 대한 판단, 국고채 단순매입 원칙

등 주 위원의 일부 발언은 이주열 전 한은 총재의 발언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기도 했다.

통화정책 방향 의결문에서 금리 인상 효과를 지켜본다는 표현을 삭제한 것과 관련해 5월 기준금리 인상 등 확대해석을 하지 말라는 주 위원의 발언 역시 금통위의 분위기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통방 의결문에서 금리 인상 파급효과를 지켜본다는 표현을 삭제한 게 5월 추가 인상을 시사한 게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다"며 "금통위 전반적으로 5월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충격이 예상했던 것보다 크며 앞으로 물가 상방 리스크뿐 아니라 성장 하방 위험도 균형 있게 동시에 고려할 것이라는 주 위원의 언급 역시 컨센서스에서 크게 어긋나는 것은 아닌 듯하다. 다만 주 위원의 발언에 대한 시장 반응과 한은 집행부의 해석에는 일부 온도차가 있어 보인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오늘 주 위원의 발언은 금통위 위원들의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물가와 성장을 앞으로 균형 있게 본다는 건 어느 정도 원론적인 발언으로 봐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도 언제나 물가와 성장을 균형 있게 보는데, 다만 실제 경제와 물가의 상·하방 리스크가 어느 쪽으로 편향되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물가 쪽 리스크가 크면 물가로 기울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매파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통화정책 경로 판단 일러..새 한은 총재 발언 지켜보아야

시장 참가자들은 당장 통화 긴축 가속화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덜었다면서도 주 위원의 발언만으로 향후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고 또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의 발언 내용이 금통위 컨센서스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도 전체적인 발언의 톤과 내용의 비중을 살펴볼 때 채권시장 안정에 좀 더 치중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창용 한은 총재 후보자의 상황 인식을 확인하면서 향후 임지원 금통위원 교체에 따른 금통위 전체의 색깔 변화 가능성도 대비해야 한다는 게 시장 참가자들의 지적이다.

증권사의 한 채권본부장은 "주 위원 발언을 어느 정도 걸러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유가가 다시 130 달러까지 찍으면서 올라가지 않는다면 결국 현재 시장금리 수준이 과하다는 걸 모두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모든 게 금리 인상과 연관돼 있는 듯해 보이지만 물가가 여기서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모두 하고 있다"며 "새로운 한은 총재의 이야기와 향후 경제지표 흐름 등을 확인하면서 시장이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진단)-꺾직한 재료 다 나왔다?..원화, 박스권 장세로 복귀하나

서울, 4월 14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초반만 하더라도 전 고점을 향해 힘차게 달리던 달러/원 발걸음이 한층 무거워졌다.

글로벌 공급망 악화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공격적인 통화 긴축을 예고한 이후 국내외 금융시장은 한동안 이를 가격에 반영하느라 몸살을 앓았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3년여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고, 달러지수는 100 선을 넘어 약 2년 만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달러/원 환율은 1240 원 근처로 가파르게 올라 전 고점을 가시권에 두기도 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사이 달러/원 환율은 시장 분위기가 반전된 틈을 타 속락하면서 다소 애매한 1220 원대 중반에 위치하게 됐다.

▲ 나올 것 다 나왔다?

미국 소비자(CPI) 및 생산자물가지수(PPI) 결과를 통해 거센 물가 상승 압력은 재차 확인됐다. 미국 3월 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8.5%로 1981년

12월 이후, 그리고 PPI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1.2%로 관련 통계가 도입된 2010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국내외 금융시장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빅 스텝' 금리 인상을 적극 반영해 왔고, 3월 물가지표 결과를 토대로 물가 정점론 기대도 생기면서 일방적으로 내달리던 미국 국채 금리 급등세와 강달러에 제동이 걸리면서 시장은 진정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외 여건 변화가 주요하지만, 원화의 경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이례적인 환율 수준 관련 발언과 당국 개입 추정, 그리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 결정이 함께 맞물리면서 최근의 약세 탄력이 한층 둔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A 은행 외환 딜러는 "부총리 구두 개입에 환율이 1240 원대를 가지 못하고 내려왔다.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2.8%대를 찍고 하락하고, 한은도 25bp 금리를 인상해 금리 갭을 좁히는 등 조금은 긍정적인 뉴스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원화, 다시 박스권 장세?

현재 달러/원 환율은 1220 원 초·중반에서 거래되면서 최근 환율이 상승세를 타기 이전 박스권 상단에서 지지력을 시험하고 있다.

이전보다 단기 박스권 하단이 올라왔다는 지적은 있지만, 꺾직한 이벤트를 어느 정도 소화한 만큼 환율이 방향성보다는 다시 박스권에 갇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물론 내일 삼성전자 배당 지급에 따른 수급 부담이 있지만, 주 초 어느 정도 처리된 측면도 있는 데다 환율 상승 압력이 둔화된 상황에서 이에 따른 경계감도 다소 느슨해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진행형이고, 5월 초 연준 정책회의를 앞둔 불확실성에 원화 강세 시도가 적극적이기는 어렵다는 전망은 여전히 전한다.

B 은행 외환 딜러는 "큰 재료는 지나가고 있어 연준 회의를 앞두고는 원화에 대한 관망세가 형성될 수 있다"면서도 "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중국 코로

나 봉쇄조치에 따른 긴장 요인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달러/원 하단이 상향 조정된 채 방향성 탐색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 알림: 뉴스레터 이메일 서비스가 4 월말 종료됩니다.

저희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가 주간 뉴스레터 배포 방식을 변경합니다.

그에 따라 이메일 서비스는 4 월 말 종료되며, 이후 뉴스레터는 레피니티브 아이콘 단말기로 계속 제공됩니다.

그동안 로이터 주간 뉴스레터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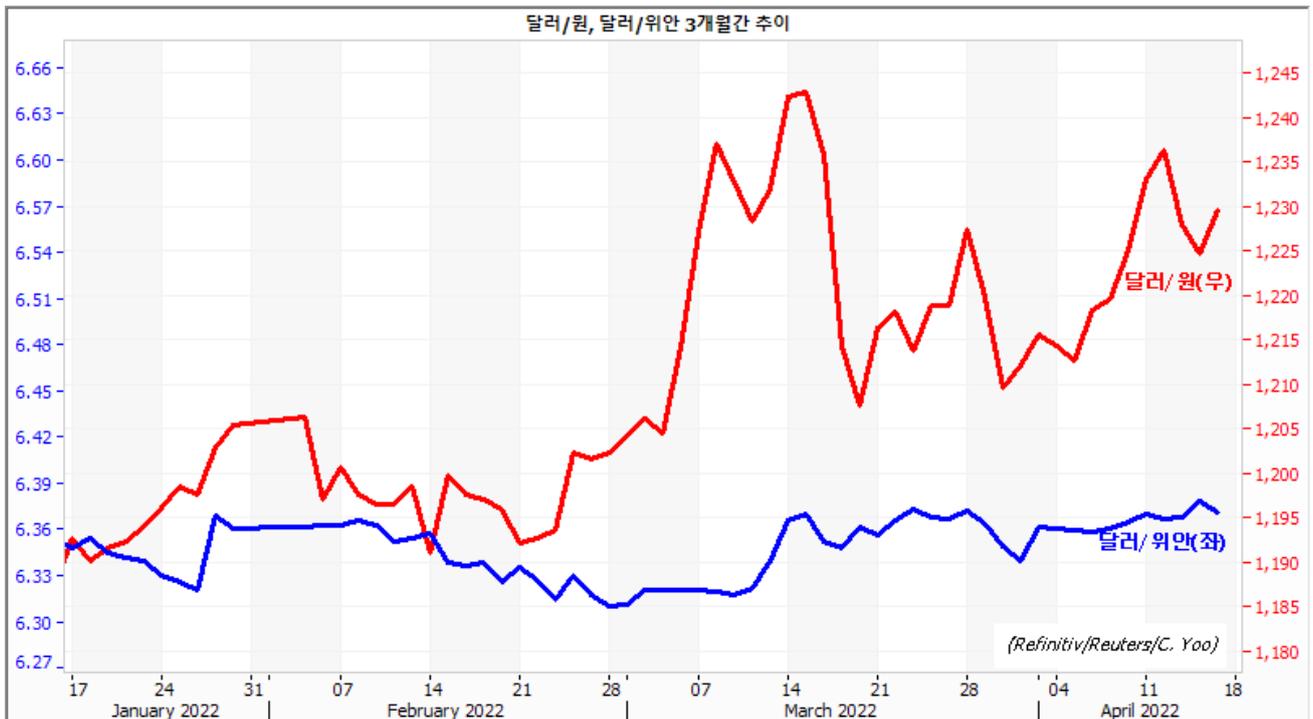
오는 5 월 이후 로이터 뉴스레터 구독에 관한 사항은 레피니티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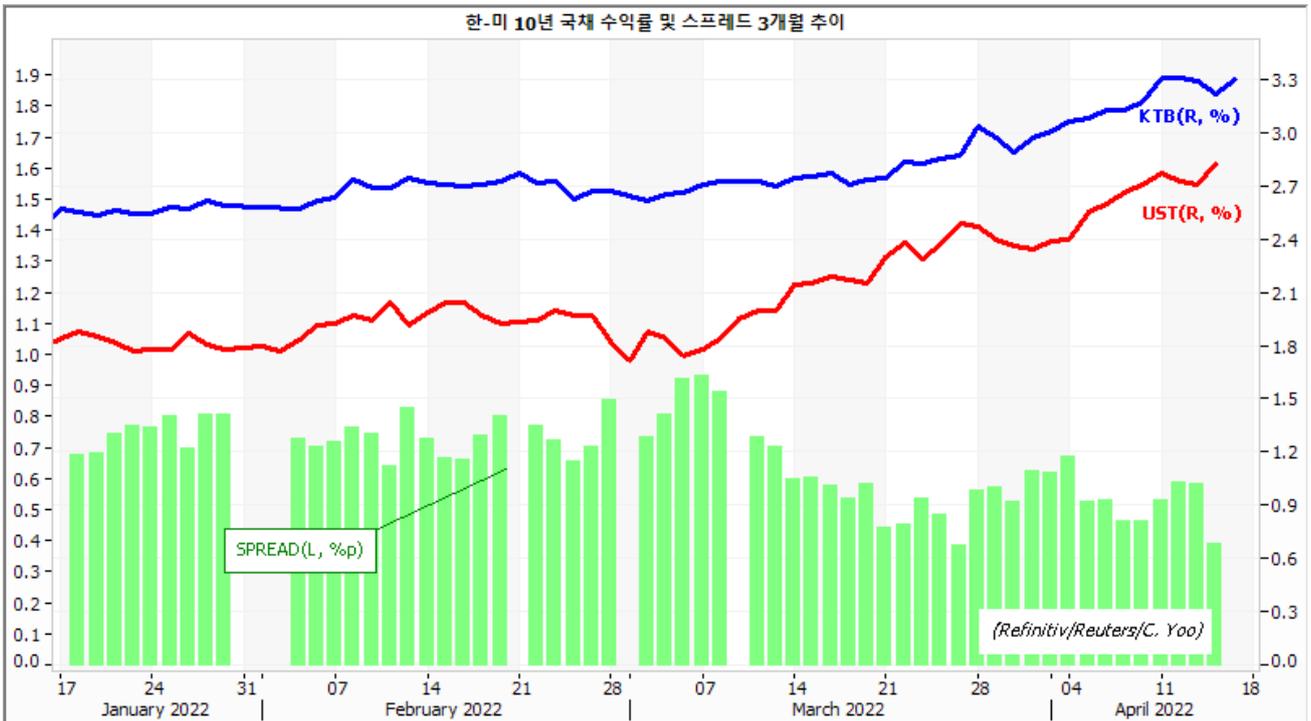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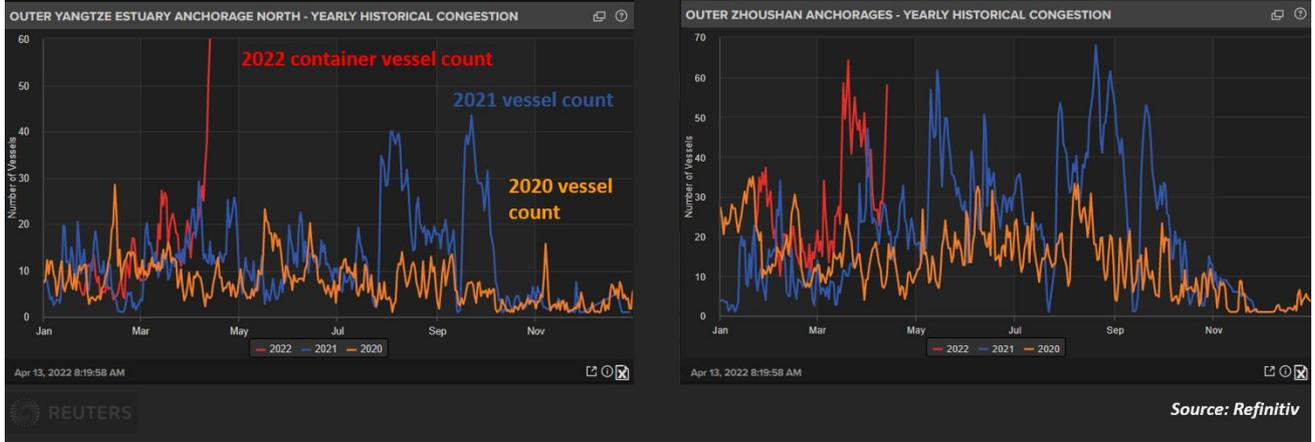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Container congestion worsens off key ports along Eastern China as COVID lockdowns persist

The number of container vessels waiting to load/unload off Shanghai & Zhoushan ports has more than doubled since early April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